

## H.F.의 증언: 대니얼 디포의 『전염병 연대기』 연구

조 성 란  
(경희대학교 교수)

### ◆ 국문초록

대니얼 디포(Daniel Defoe)의 『전염병 연대기』(*A Journal of the Plague Year*)가 다루는 1665년 런던 대역병(Great Plague of London)은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트라우마이다. 서술자 H.F.는 이 트라우마의 생존자이다. 그는 자신에게 능동적인 역할인 증인의 임무를 부여한다. 이 논문의 목표는 디포의 소설 『전염병 연대기』를 문학적 증언 서사 (literary testimony)로 보고 생존자 H.F.의 증언의 내용과 효용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첫째, 전염병과 전염병이 초래한 고통의 재현을 논한다. 둘째, 이 전염병과 전염병이 낳은 고통을 사회계급과 관련지어 설파하는 디포의 입장을 논한다. 연구 방법으로 증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증인 H.F.가 사용하는 이미지 군(群)과 ‘생생함’의 서사 전략을 고찰한다. 사회계급과 전염병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역병’인 이 전염병에 대처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중된 고통을 논한다. H.F.는 예리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전염병의 경험과 그에 대한 증언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고찰한다.

이러한 고통의 이미지를 통한 증언은 과거 1665년 전염병의 시대를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하여 1772년에 닥칠지 모를 전염병의 위협에 대해 각성하게 된다. 감각과 감정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H.F.의 증언을 통해 디포의 증언 서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전염병 창궐에 대비해 병자를 건강한 자와 따로 격리하는 것, 페스트 하우스를 늘리는 것과 같이 그가 제시하는 실질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당대 청교도인 디포가 가진 종교적 사고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 전염병이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인간의 죄를 참회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H.F.의 증언이 과거를 바라보며 ‘집단지역’을 창출하고 애도를 담당하는 서사가 되고 미래를 향한 경고의 글이 됨을 말하고자 한다. 증언으로서 H.F.의 의도는 미래지향적이고 공동체적이다. 말하는 자는 말함으로써 치유와 자아 통합에 더욱 근접해 간다. 듣는 자는

공포와 동정 등의 감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다음 행동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정면 돌파할 가능성도 생긴다.

주제어 : 계급의식, 대니얼 디포, 이미지, 『전염병 연대기』, 증언 서사, 집단기억, 트라우마 생존자

런던 페스트에 병들다.  
때는 1665년, 저 세상에 입적한 수 십만  
그러나 나는 살아남았도다!  
H.F.

## 1. 트라우마 생존자 서사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의 저자로 더 많이 알려진 영국의 작가 대니얼 디포(Daniel Defoe)의 『전염병 연대기』(*A Journal of the Plague Year*)는 “런던 페스트에 병들다. 때는 1665년, 저세상에 입적한 수 십만, 그러나 나는 살아남았도다! H.F.”라는 트라우마 생존자의 경구와 같은 말로 끝난다. 책의 끝에 가서야 처음 등장하는 싸인 “H.F.”는 그 때까지 익명으로 이야기를 서술해 온 생존자의 기표이다. H.F.를 서술자의 모델이 된 디포의 아버지 헨리 포(Henry Foe)의 약자라고 간주하는 연구자들도 있으나, 여기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역병의 생사 경계를 넘어 그가 ‘살아남은 자’라는 것이다. 이 책이 출판된 것은 런던의 바로 전 역병의 시대인 1665년에서 60여 년이 지난 1722년으로, 마르세유에서는 이미 선페스트(bubonic plague)가 발발한 시점이다. 중세 때의 흑사병(Black Death)을 위시해서 세계사는 가히 전염병의 세계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염병은 인류와 함께해 왔다. 1665년~1666년 1년 사이에 나중에 벼룩에 의해 옮겨지는 것으로 밝혀진 선페스트로 인해 런던 오십만 인구 중 십

만 명이 죽어 나갔다. 런던은 봉쇄되었다. 이렇게 인간의 이해를 넘는 압도적인 대파국의 트라우마<sup>1)</sup>를 경험한 생존자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가 경험한 것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 문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본 논문은 디포의 소설 『전염병 연대기』를 문학적 증언 서사(literary testimony)로 보고 전염의 시대를 경험하고 바로 또 다가올지 모를 전염의 시대를 마주한 주인공 H.F.가 당대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증언의 내용과 효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서사, 즉 내러티브(narrative) 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역사이다. 문학으로서의 증언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즉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의 의미를 성찰하고 재고찰하게 한다.

선페스트의 창궐은 ‘집단 트라우마’를 초래할 수 있다. 집단 트라우마는 외상적 사건이 대단위의 인구에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 트라우마와 달리 사회질서나 문화적 정체성에 압도적 위협이 되는 뜻밖의 사건을 말한다(Giesen 200). 사회학자 에릭슨(Kai Erikson)에 따르면 집단적 트라우마는 한 커뮤니티의 공동체 의식을 해체하고 조력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까지 간접적인 그리고 이차적인 외상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한다. 집단적 트라우마가 일어나면 개인의 트라우마 경험을 강화시킬 수 있다. 개인이 통상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회 안전망과 조력 체계가 붕괴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질병, 팬데믹, 전염병도 통상적인 외상적 사건에 포함될 수 있다. 역병의 광경, 소리, 냄새, 몸의 감각도 트라우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디포의 트라우마 서사에도 개인적 트라우마뿐 아니라 집단 트라우마의 요소들이 들어있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의 방기, 팬데믹, 심각한 질병, 사랑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상실, 죽음과 상처의 목도, 갑작스러운 규칙,

1) 본 논문에서 트라우마는 외상적 사건, 또는 이로 인한 심리적 상처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기대, 사회적 규범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Colclough 16). 트라우마의 진단은 이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스트 생존자, 히로시마 생존자, 레지스탕스, 전쟁 베테랑들이 트라우마의 경험에서 오는 심리적 상처로 고생하면서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트라우마 생존자 서사(survivor narrative)는 홀로코스트와 히로시마 서사를 기반으로 하여 정신분석학자 리프톤(Robert J.Lifton)을 중심으로 이론화되었다. 트라우마를 겪은 생존자 서사이론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의지로든 우연으로든, 희생자 위치를 벗어났을 때 생존자는 타인들은 자기 경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고립감을 느낀다. 그 경험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생존자는 질서, 이성,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흔들리고 자아가 부서지는 혼란을 겪는다. 또한, 홀로 살아남았다는 데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자신이 그 혼란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죄책감이다. 최종적으로 생존자는 죽은 자들을 애도할 필요성을 느낀다. 재난에 희생된 사람들 뿐 아니라 ‘살아남지 못한 삶들과 함께 죽은’ 트라우마에 희생되지 않은 순수한 자신도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생존자는 트라우마 경험을 ‘서사화’하고 자신의 외상을 ‘정면 돌파’하여 부서진 자아의 회복을 꾀한다(Cho, 58-59).

『전염병 연대기』의 서술자 H.F.도 트라우마의 생존자이다. H.F.도 트라우마 사건에 의한 심리적 상처에 시달린다. 런던의 빈 거리를 배회하다 들어오면 탈진하고 두려워 몇 주는 나가지도 못한다. 현대 트라우마 이론과 소설은 트라우마의 재현 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소설의 발생기에 이 글을 쓰고 있는 디포는 현대 트라우마 소설에서처럼 트라우마의 재현 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H.F.가 형언 불가능한 트라우마를 이겨내며 재현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디포는 타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한 이후 절대적 고립감을 느끼는 H.F.에게 능동적인 역할인 증인의 임무를 부여한다. 그리고 H.F.는 형언 불가능함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보여 주고자 한다. H.F.가 압도적인 외상적 트라우마에 희생자가 되는 것은 저널의 기초가 될 메모랜덤을 씌으로써 극

복하는 것으로 재현된다. 그리고 그 메모랜덤을 기초로 쓴 그의 저널은 외상적 사건을 서사화하는 그의 증언이 된다. 왜 증언하는가? H.F.의 증언은 일차적으로 트라우마로 부서진 자아를 서사화하며 정면 돌파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생존자 서사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의 증언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생존자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타인과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적인 언어 행위이다. 런던 대역병 기간에 겪었던 일들을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사실 그대로 전하고,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현실의 지옥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H.F.는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쓰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가? 말하는 자는 말함으로써 치유와 자아 통합에 더욱 근접해 간다. 듣는 자는 공포와 동정 등의 감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형성된 공감대에 기반을 둔 다음 행동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정면 돌파할 가능성도 생긴다. 그러므로 과거 사건에 대한 한 개인의 증언이지만 증인으로서 H.F.의 의도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공동체적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발발할지도 모를 전염병에 대비해 실용적인 준비를 건의하는 것과 신의 분노를 잠재워 전염병을 막도록 독자에게 참회를 권유하는 것이다<sup>2)</sup>.

디포의 글에서 중요한 것은 증인 H.F.가 전염병의 현장에 있었다고 설정된 것이다. 이 증언 서사에서는 현장에 있었던 일인칭 서술자 증인이 서사의 중심이 된다. 증인은 말하기 어려운 사실을 말하는 생존자로서 보고 듣고 적고 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권위자이다. 그의 서사의 권위는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데서 온다. 그는 관찰자, 체험자이면서 전달자이다. 역사가가 할 수 없는, 내

2) 의료인류학자 포트(Meyer Fortes)는 파괴적인 질병이 닥쳤을 때 인간은 “왜 나지?” “왜 지금이지?” “어떻게?” “내 잘못인가?” “내가 바깥 공격의 희생양인가?”라는 질문을 한다고 한다(Fortes xix, Healy 재인용 28). 그리고 유럽의 선페스트가 발발했을 때 “왜 우리지?” “왜 지금이지?”에 대한 답은 항상 신의 분노였다(Healy 28).

가 거기 있었다는 권위자의 위치에서 연대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증인으로서의 H.F.는 “개인적인 명상에 관계되는 것은 내 사적인 일에만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증언에 객관성을 띠고자 노력한다. 또한 그는 교훈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한다.

시간이 나면 책을 읽었다. 그리고 그날 일어난 일을 메모랜덤에 적었다. 그 메모랜덤에서 나의 객관적 관찰과 관계되는 것을 골라냈다. 개인적인 명상에 관계되는 것은 내 사적인 일에만 사용하고 공개되지 않기를 바란다. (*A Journal*, 76-77)<sup>3)</sup>

증인으로서 객관성의 담보를 위해 H.F.는 두 가지 서사 전략을 취하는데, 하나는 서사를 선형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이끌어가며 공식적인 “주간 사망 통계”(Weekly Mortality Rate), “도시 행정명령” 등의 역사적 사료 기록물을 계속 삽입하는 것이다.<sup>4)</sup> 둘째는 ‘일화’로 이루어진, 들은 이야기들과 시간을 따라가며 관찰한 이야기들을 계속 삽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객관적 사료, 자신의 관찰, 그리고 삽화들이 교직 된다. H.F.는 트라우마의 희생자로서 “사적 명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 역병이 창궐한 황량한 런던 거리를 저널리스트처럼 배회한다. 그리고 공적 사건들, 공적 자료들, 직접 목격한 것 등, 모을 수 있는 만큼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모은다. 선페스트 희생자에 관한 이야기는 스스로 목격한 것, 또는 직접 본 제삼자에게 들은 것 중에서 선별한다. 디포는 사람들에게 전염병 시대의 대재앙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자신과 사람들이 그 재앙의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한다. H.F.

3) 번역은 필자. 이후 쪽수만 표기.

4) 통계와 런던 지형도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 참조. Nicholas Seager, “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 Epistemology and Fiction in Defoe’s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Modern Language Review* 103.3 (July 2008): 639-53. Manuel Schonhorn, “Defoe’s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Topography and Intention,”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 New Series, 1976. (1968): 387-402.

의 연대기는 단지 기록인 것만이 아니라 외상적 사건 이후에 역병을 다시 성찰하는 것, 사적인 명상, 그리고 역사와 역사 기록에의 개입이며 ‘집단기억’이다.

디포의 『전염병 연대기』가 역사인가 소설인가 하는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특히 연구 초반에는 『전염병 연대기』를 역사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F.배스티언(Bastian)과 같은 초기 비평가는 『전염병 연대기』가 역사이며 사실과 다른 지점은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술자 H.F.가 뚜렷한 개성을 가진 중심 인물임이 강조되면서 이 글은 초기 소설의 형태를 갖춘 글로 간주되게 되었다. 불안과 공포, 연민, 끊임없는 성찰로 시선을 끄는 증인 캐릭터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H.F.의 종교성을 추적한 비평가 짐머맨(Everett Zimmerman)은 H.F.가 대역병 트라우마 사건 하에서의 인간 조건을 이해하고자 한다고 평한다. 호기심이 많은 그는 물론 전염병과 관계된 가지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으나 물리적인 것 배후에 있는 영적 의미와 목적을 추구한다(418). 그런데 텍스트의 역사적 정보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 텍스트는 허구적 증언이다. 『전염병 연대기』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고 허구인데도 증언이 될 수 있는가? 허구의 증언은 상상의 공간을 차지한다. 이것이 디포의 『전염병 연대기』가 역사보다는 문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문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쿡(Jennifer Cooke)이 카뮈(Albert Camus)의 『페스트』(*La Peste*)에 대해서 말하듯 문학의 선물은 “누구나 다”를 위해 말할 수 있는 “증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H.F.의 관점은 개인적이고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듣고 관찰한 많은 일화를 포함함으로써 동시에 수많은 목격담을 다룰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증언 서사가 된다. 『전염병 연대기』는 모두를 위해 증언할 수 있는 허구의 증인 H.F.를 통해 대역병 사건을 상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서사화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럴 때 “H.F.”는 모두를 위해 말할 수 있는 증인의 기표가 된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했듯 디포의 소설 『전염병 연대기』에서 설페스

트 발발의 생존자 H.F.의 증언의 내용과 효용을 추적한다. 본 논문은 첫째, 전염병과 전염병이 초래한 고통을 논할 것이다. 둘째, 이 전염병과 전염병이 낳은 고통을 사회계급과 관련지어 논한다. 그리고 H.F.의 증언이 ‘집단기억’과 애도의 서사이며 미래를 향한 경고의 글임을 논할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증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증인이 사용하는 ‘이미지군(群)’과 ‘생생함’을 통한 서사 전략을 고찰한다. 사회계급과 전염병을 연관 지어 논하는 부분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역병’이라고 불린 가난한 사람들의 가중된 고통을 논하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로는 서사 전략과 전염병과 사회계급의 시각에서 『전염병 연대기』를 증언 서사로 논구한 해외연구는 극히 드물고 국내 연구는 아직 없다. 이 논문을 통하여 『전염병 연대기』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의학과 문학의 관련 연구, 트라우마 생존 서사, 증언과 역병 재현 등의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증언 1: 고통의 이미지

### 1. 생생함

H.F.는 우선 선페스트라는 병 자체의 고통을 재현하는데 그의 증언을 할애한다. 선페스트로 인한 고통의 이미지는 그로테스크하다.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 당시 B.C. 430~26 사이에 아테네에 역병(the Plague of Athens)이 돌았다.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는 이에 관해 역병 서사를 씀으로써 서구 역병 서사의 기원을 열었다고 평가된다(Colclough 60). 투키디데스의 글의 특징은 ‘생생함’, ‘그림같이 그려냄’에 있다고 플루타르크(Plutarch)가 평한 바 있다(Colclough 42). 플루타르크는 투키디데스가 독자/청자에게 실제 사건을 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충격과 경악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충격과 경악의 감정이 트라우마 사건의 특징이다(Colclough 60). 대역병이라는 외상적 사건의 생존자로서 H.F가 증언하고자 하는 것도 그가 듣고 보고 겪은 현장을 투키디데스처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디포는 문학을 통하여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그대로 재현해 그때 만연했던 참혹함에 대해 알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들의 마음에 적당한 인상을 남기고 충격에 휩싸이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H.F.가 보기에 런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증인으로서의 H.F.의 첫 번째 특징은 그의 증언을 효과 있게 하도록 그가 사용하는 수사 전략이다. 디포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강력한 이미지를 통해 생생한 객관적 증언을 피하였다. 여기서는 특별히 증언의 효과적인 수용을 위하여 디포가 사용한 서사 전략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디포가 세 종류의 이미지 군(群)을 통해서 생생함을 얻는다는 비평가 스티븐슨(Raymond Stephanson)의 연구를 논한 이후, 이 방법을 증언의 두 중요한 장면 분석에 적용한다.

디포는 『역병에 대비한 영혼과 신체를 위한 준비』(*Due Preparations for the Plague, as well for Soul as Body*)를 1720년에 써서 1722년 『전염병 연대기』를 출간하기 한 달 전에 출간했다. 이 글은 전염병이 다시 발발할 경우를 대비한 실제적인 제언과 신앙적인 제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스타일은 교훈적이다. 스티븐슨은 디포가 『전염병 연대기』에서 증언의 ‘생생함’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종교적 유형학이나 교훈적 글쓰기를 지양했다고 적절하게 분석하였다(680). 그는 디포가 영적인 것과 감각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았고 교훈적인 글보다는 실제로 ‘듣는 것처럼’, ‘그림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는 수사법을 쓰고자 했다고 분석한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투키디데스의 ‘생생함’의 방법과도 유사하다.<sup>5)</sup> 스티븐슨은 이 방법이 독자들을 끌어들이 공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더 나아가 종교적인 마음을 가진 디포에게는 이제까지와는 “다

5) 투키디데스와 디포를 역병 서사 작가로 비교한 논문으로는 다음 참조. C. Rubincam, “Thucydides and Defoe: Two Plague Narra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lassical Tradition*. 2004.

른 눈과 귀”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다고 주장한다(681). 나는 스티븐슨의 중요한 연구에 동의하지만, 스티븐슨이 디포의 새로운 서사 전략의 목적이 인간이 죄를 인정하고 전염병으로 나타나는 신의 진노 앞에 참회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에는 생각을 달리한다. H.F.의 증언에는 청교도인으로서 디포의 신앙적인 면과 성찰하는 지식인, 그리고 사업가의 실용성이 함께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H.F.는 1722년에 와서 1665년 역병의 직접적인 감각이나 인간에게 끼치는 끔찍한 위협을 효과적인 “말하는 광경”(Speaking Sight)으로 증언하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그는 “다만 *정말, 정말, 정말*, (강조 원문) 끔찍했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외에는 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이 어떠했는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60)”하다는 형언 불가능성에 관해 말한다. ‘생생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취하여 눈앞에 보이고 들리도록 생생하게 말하거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디포의 서사 전략에 대해서는 스티븐슨의 분석이 독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에 따르면 디포가 택한 서사 전략은 “이미지들의 모음”, 즉 이미지군(群)(imagery)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는 것이다. 『전염병 연대기』에서 디포가 실험하는 것은 이미지를 지성이 아니라 시각적 청각적 상상력에 닿게 하는 것이다(Stephanson 685). 스티븐슨이 『전염병 연대기』에서 선별한 세 종류의 이미지군(群)의 분석은 타당하고 유용하다. 디포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 역병의 끔찍함에 독자들이 눈과 귀를 열고 역병이 상징하는 영적 차원에까지 그들이 영혼을 열기를 원한다. 첫째는 신체의 괴멸과 분해의 이미지이다. 둘째는 붕괴하는 가족과 사회적인 이미지를 페이스북을 통해 그려내어 동정적인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다. 셋째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강력한 성격적,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이미지야말로 선페스트의 실체를 그리는 것으로서 선페스트의 참혹함과 영향력을 그려 독자에게 공포와 경악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685). 그 고통의 이미지의 예는 그로테스크하다.

열이 나고 구역질을 하고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옵니다. 등의 고통이 너무 지독해서 그 통증으로 광적으로 되고 미치지요. 다른 사람들은 목, 사타구니, 겨드랑이가 붓거나 혹이 생겨요. 혹이 깨지기 전까지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고문입니다. (200)

H.F.는 “역병이 피에 들어온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시체로 그 숨이 전염성 있고 땀은 독이 되고”(202) 와 같은 장면을 그리듯 증언한다. 이와 같은 말은 신체 절단에 대해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건드리는 강력한 것이다(Stephanson 686). 서사는 죽음의 다양한 모습 또한 그려낸다. “[그]는 완전히 죽어있었다. 거의 차가워져서 침대에 가로 누어 있고 옷은 벗겨지고 턱은 떨어지고 눈은 가장 무서운 모양으로 열려있고 한 손으로는 침대의 러그를 움켜쥐고”(72) 라고 그려진다. 이러한 그로테스크한 몸의 이미지가 비가시적인 전염병의 가시적, 물질적 실체이다.

H.F.가 이용하는 두 번째 이미지는 슬픔의 정조를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써 동정과 공감의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주로 가족과 부모의 관계를 둘러싼 이미지이다. 그 예는 딸의 몸에서 전염병의 치명적인 표식을 갑자기 발견하고는 기절하고 히스테리컬하게 되는 엄마, 미처 흥미해진 친척을 찾으려 거리를 달리는 가족들의 묘사 등이다. 또 엄마나 유모가 전염병으로 죽은 후에 그 젖을 빨고 있는 아기들의 이미지도 있다. 엄마가 아이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아이한테서 전염병이 옮겨 아이를 안고 함께 죽은 모습의 묘사도 있다. 엄마의 본능, 아이의 순수함, 엄마와 아이의 공생 관계 등 가장 긴밀한 관계가 전염병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전염병 연대기』에는 성경에서 인용된 많은 이미지가 있다. 이는 황량함, 어리석음, 광증, 방황, 의인화된 죽음, 감옥, 동물성, 전쟁, 악마와 괴물 등의 이미지 등이다. 일례로 죽음의 이미지는 “머리만이 아니라 집, 방을 들여다보고 얼굴을 응시하기 시작하는 이미지”로 의인화된(34).<sup>6)</sup>

생생한 고통의 이미지를 통한 증언은 과거의 전염병의 시대를 가깝

게 현실적으로 그리는 효과가 있다. 그리하여 다시 닥칠지 모를 전염병의 위협을 경고하는 것이다. 디포가 감각과 감정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H.F.의 증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전염병이 다시 발발했을 때를 대비해 그가 제시하는 실용적인 제안을 실천하는 것이다. 건강한 가족을 병자와 따로 격리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현재 한 채 밖에 없는 병자가 머무는 페스트 하우스를 더 짓는 것이다. 둘째, 인간이 죄에 대해 참회하는 것이다. 당대의 종교적 신앙은 전염병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그들의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정면 돌파하여 치유에 다가가는 것이다. H.F.는 그들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있다. 이미지를 통한 생생한 H.F.의 증언을 통해 디포는 독자의 가슴을 찌르고 영혼을 움직이는 효과를 내는 데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디포는 “내가 이 부분을 감동적으로 표현하여 독자들의 영혼을 울린다면 아무리 짧고 불완전해도 내가 그것을 썼다는 것에 기뻐할 것이다(Stephanson 685)”라고 말한다. 이제 텍스트에서 내용상으로도 핵심을 이루는 두 가지의 사례를 위와 같은 강렬한 이미지의 고찰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매장구덩이’의 이미지이고 또 하나는 ‘주택붕쇄’의 이미지이다.

## 2. 매장구덩이와 주택붕쇄의 이미지

대표적 집단 트라우마의 이미지는 집단으로 시신들이 묻히는 매장구덩이이다. 서사를 시작하자 곧 H.F.는 안전한 집을 떠나서 엘드케이트

6) 『요한계시록』의 창백한 말을 타고 돌진하는 강렬한 죽음의 이미지(charging death itself on his pale horse)로 캐서린 앤 포터(Katherine Anne Porter)의 역병 서사 『창백한 말, 창백한 기사』(*Pale Horse, Pale Rider*) 참조. 포터는 1918년의 치명적 전염병이었던 스페인 독감(Spanish Flu)에 걸려 사경을 헤맸고, 사경을 헤매는 동안 연인은 그 독감으로 죽는다. 압도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포터는 이 경험을 소설로 서사화할 수 있었다.

(Aldgate) 교회의 매장구덩이를 찾아간다. 가장 최근의 역병 희생자들이 묻힌 곳이다. 역병의 끔찍한 결과를 보러 간다는 것이 이 집단 무덤을 역병의 상징물로 만든다. 매장지는 구별할 수 없는 집단 무덤이다. 교회 마당에 이름도 없고 격식도 없이 파묻히는 시신 구덩이의 대량무덤이 역병의 무분별한 집단적 효과를 극적으로 상징화한다. 로젠(Alan Rosen)은 H.F.의 서사가 여기서 곧 한 명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주목한다(Rosen 268). 이 한 명의 고난은 대표성을 띠게 된다. 그 또한 관망자로서 죽은 부인과 여러 명의 가족과 헤어지기 위해 이 끔찍한 매장구덩이를 찾아온 것이다. 아내와 딸이 묻히는 것을 보러 왔다가 시신들이 무더기로 쓰러져내려 묻히는 장면을 보고 그는 까무러친다. 각각의 다른 애도자들도 이와 같은 죽음의 이미지에 맞추어져 간다. 갑작스럽게 동시에 많은 가족을 잃었다는 것, 밤에 홀로 그들이 묻힌 집단 매장으로 찾아왔다는 것, 구덩이 앞에 처음에는 침착하다가 실신한다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쌓인 슬픔이 응축된 이미지이다(75-76). 이들의 광경은 처음에는 말하지 않는 구덩이와 같이 조용한 모습으로 묘사되다가 곧 비극의 ‘공감각’적인 소리와 광경, “목소리가 있는 말하는 광경”(Speaking Sight[...] with Voice, 75) 이 된다. 이 매장구덩이는 역병이 가져온 파괴의 상징이다. 검은 입을 벌린 지옥과 같은 매장구덩이는 역병의 상징적 이미지이다.

다음으로 이 증언에서 전염병만큼이나 공포와 불안을 유발한 ‘주택 봉쇄’의 이미지를 논해 보자. H.F.는 하고 싶지 않은 가장 처참한 이야기로서 주택봉쇄를 증언한다. 이는 초기 전염병 역제의 적극적 대응 수단으로 시장과 행정 장관회의에서 결정한 조치이다. 조사원을 두어 감염된 환자를 색출하고 감염된 환자를 십자가로 표시한 주택에 격리한 후 감시원을 두어 지키게 하는 것이다. 푸코가 이론화한 권력의 일상생활에의 침투이다. 당시 이 조치의 가장 큰 문제는 감염되지 않은 가족도 함께 격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금된 상태의 공포가 증강되었다. 가족이 병에 걸려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고통으로 기절하거나 사망했

다. 그리고 경악한 나머지 까무라쳐 죽거나 미치거나 기억력을 상실했거나 분별력을 잃었다고 증언한다.

가족들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끔찍했다.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전염병의 맹위 속에서, 또는 부기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자제심을 잃고 종종 창밖으로 몸을 던지거나 총을 쏘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했다.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도 놀람을 이기지 못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악한 나머지 혼이 나가는 바람에 멍청하게 바보가 되거나 절망하다가 미치거나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81)

하지만 집을 봉쇄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조치가 결코 아니었다. 주택 봉쇄는 원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절망적으로 집 밖으로 달아나도록 했다. 식구가 전염병에 걸려 들어오면 검사관이 도착하기 전에 가장이 식구들을 먼저 몰래 이동시킨다. 그리고는 선의로 받아들여 준 집까지 감염시켜 잔인하고 배은망덕하게 되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다. 전염병은 감염경로를 모르고 자신이 걸린 것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기 집을 도망친 사람들은 감염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적대시되고 숙박할 곳을 얻을 수 없으므로 떠돌다 죽는다(95-96). 이것은 신앙심뿐 아니라 인류애에도 반대되므로 H.F.가 가장 반대하는 조치이다. 십자가로 표시한 봉쇄된 주택의 이미지도 매장구덩이와 함께 전염병이 초래한 고통의 상징적 이미지이다. H.F.는 감각적 생생함과 이미지로 고통의 현장을 재현하여 독자의 마음에 각인시켰다.

이제까지 전염병의 고통과 이에 대한 증언을 논하였다면 다음은 전염병과 가난한 자들의 가중된 고통에 대한 H.F.의 증언을 논하고자 한다. H.F.는 예리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전염병의 경험과 그에 대한 증언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고찰하는 것이 다음의 목표이다.

### III. 증언 2: 가난한 자의 역병

#### 1. 역병과 계급의식

H.F.의 증인으로서의 첫 번째 특징은 고통을 표현하는 데 이미지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이었다. H.F.의 증언자로서의 두 번째 특징은 가난한 자의 비극에 동정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동정을 보이는 사례가 드물어 H.F.의 경우가 이례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전염병 연대기』에서는 계층 문제를 다룬다. 하지만 이 텍스트가 다루는 계층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평가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노박(Maximilian Novak), 브룩스(David Brooks), 힐리(Margaret Healy)가 디포가 다루는 역병과 가난한 사람들의 계층 문제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데, 각각의 접근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노박은 디포의 서술가 H.F.와 계층 문제를 소설의 발생과 연결해서 생각한다. 브룩스는 디포의 계층적 관점의 반응을 보편적 인간적 관점의 반응과 대조시킨다. 비평가 힐리의 경우는 전반적 경제문제와 연결하여 역병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주목한다.<sup>7)</sup> 힐리에 의하면 프로테스탄트 역병 서사 작가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역병의 시기에 “가난하고 필요가 많은 형제”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53). 노박은 우선 1665년의 대역병이 “가난한 자의 역병” “가난한 자의 비극”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부터 지적한다(Novak 241). 그런데도 대부분의 연대기 작가들은 역병의 시대에 가난한 자들의 곤궁함, 역병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대조

7) 비평가 퍼럴도(Emmanuelle Peraldo)에게 “가난한 자의 비극”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과 괴로움이다.

적으로 디포는 희생자들, 특히 가난한 자들의 ‘무질서’에 비범한 동정심을 보였다(Novak 241-52). 『전염병 연대기』에 나타나는 역병과 계층 관계에 관해서는 일찍이 벨(Walter Bell)이 그의 저서 『대역병』에서 강력하게 설파한 바 있다. 벨은 “이 책은 가난한 자들의 비극을 이야기한다. 지위와 부를 가진 사람 중에도 극소수는 런던에 남아 모두가 짊어져야 할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하여 재앙의 해였지만 이름을 빛냈다. 그러나 그 거대함과 압도적인 비율을 볼 때 이것은 ‘가난한 자의 역병’이었다”(v)라고 주장했다.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한 자가 더 많이 전염되어 고난받고 더 많이 죽게 되어있었다. 노박은 “디포의 서술자가 도시의 들끓는 빈민에게 동정심을 보인 첫 번째 허구적 캐릭터이다(Novak 1983, 66)”라고 주장한다. 소외된 가난한 자들에 관한 관심을 보이는 주인공은 새로운 문학 발전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것이 노박의 생각이다. 디포의 가난한 자에 관한 관심과 소설의 발전을 연결하는 노박의 분석은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노박의 견해는 H.F. 이전에는 어느 사실주의 산문에서도 인간 조건에 관한 보편적 동정심을 보인 서술자가 없었음을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앙 가운데 동정심을 발휘하는 서술자야말로 개척자의 길을 여는 것이며 노박은 디포가 “그 과정에서 소설의 발달에 중심이 되는 새로운 허구적 서술자의 패턴을 창조해냈다”(Novak 250)라는 의미 있는 지적을 한다. 노박의 지적은 소설의 발생과 발전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동정심은 디포의 다른 피카레스크 소설의 주인공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역병으로 인한 무질서와 관련지어 H.F.에게서만 특별히 나타난다고 노박의 연구는 분석한다(Novak 250-52). 몰 플랜더스나 잭 소령, 로빈슨 크루소 등 피카레스크 소설의 다른 인물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H.F. 자신은 부르주아지 중산 계층에 속한다. 플랜더스는 H.F.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경제적 동인이라고 말하는데(Flanders 165, Brooks 재인용 177) 생활인으로서의 H.F.를 움직이는 동력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인 것이 사실이다. H.F.는 본인이 속한 중산층 계급의식을 가지고 역병

과 사람들에게 반응한다. 하지만 때로는 계급의식을 내려놓고 런던 주민으로, 다른 인간들의 고통을 인지하는 인간으로 페스트와 일련의 사건을 경험한다(Brooks 176). 그는 사적으로는 역병의 두려움과 모든 사업적, 경제적 기반의 포기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명의 인간이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역병으로 인해서 계급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것과 사회 불안정을 염려한다. 런던 봉쇄 후 런던을 떠날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의 중산 계급으로서의 계급의식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 귀족과 왕궁 사람들은 서둘러 런던을 떠났다. 런던을 떠나서 머물 곳이 있는 사람들, 떠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H.F.는 건강증명서도 있고 피난 받아 줄 곳도 있다. 형님도 피난을 권한다. 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구상으로서 돌봐야 할 재물이 많다는 것, 말이 도망갔다는 것, 하인이 아프다는 것이다. 형님은 생명보다 재물을 우위에 두는 그를 비난하며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한다. 그러는 사이 H.F. 자신이 아프게 된다. H.F.는 결정을 유보한 채 고민하다 결정적 순간에 성경의 아무 곳이나 펴서 성경 점(占)으로 얻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남기로 결정한다. 신앙심이 깊은 그는 종교적 정당화로 그의 결단에 힘을 얻는다. 역병이 들끓는 런던에 남더라도 신이 그와 그의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 반대의 논리로 형은 오히려 런던을 떠나면 재산을 신이 보호해 줄 것이라 말하며 떠날 것을 권한다(177). 성경 점(占)은 당시 논란거리였고 미신에 가깝다. 그는 중세/르네상스가 계몽주의 합리주의로 건너가는 사이 시대의 인물이다. 역병과 그 여파의 참혹함을 겪을수록 H.F.는 런던에 남아 있기로 한 결정을 후회한다. 이에 대해서도 영적인 해석을 첨가한다. 그가 런던에 남기로 한 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교만 때문이었음을 인정하며 참회한다.<sup>8)</sup> 이러한 참회의 동인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앞으로 논의할 뱃사공을 만난 이후이다. 결국, 런던 봉쇄에 대해 그가 모두

8) 짐머맨은 이러한 참회를 영적 성장으로 보고 있다. H.F.의 종교적 태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좀 더 깊이 있게 논하기로 하겠다.

에게 원하는 것은 도망가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나의 의견으로는 역병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은 도망가는 것”([...] yet, it is my opinion, the best Physic against the Plague is to run away from it, 198)이라고 말한다.

런던이 봉쇄되었음에도 풍족한 물자와 인력이 있고 갈 곳이 있으며 자신과 소유물을 옮길 수 있는 귀족과 상류계층은 페스트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9월 전 5, 6월에 빠져 나갔다. H.F.는 도망가는 이들을 “더 나은 입지의 사람들”이라고 점잖게 부르고 귀족주의 사회 질서에 대한 비판이나 질책 없이 담담히 이야기하지만 우울하고 끔찍한 장면이라고 덧붙이며 떠나는 그들을 생생한 이미지로 그려낸다. 그러나 스튜어트 왕정이 옥스퍼드로 떠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비난한다. 전염병 창궐이 신이 귀족과 왕정의 죄를 정죄하는 징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그는 분개한다.

## 2. 가난한 사람들

왕정복고 이후의 런던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왕족과 귀족은 퇴폐와 사치를 일삼았으며 디포는 H.F.를 통해 그들의 퇴폐와 사치를 비난한다. 귀족과 상류계층은 역병이 발발하기 전에 런던을 빠져나갔으므로 그들은 연대기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다. 이제 부르주아지와 빈곤 계층만이 런던에 남아 역병과 맞서야 한다. H.F.가 관심이 있는 것은 런던에 남아 있는 가난한 계층이다. 육 개월 동안 모든 상업이 정지되었으므로 임금노동자, 해고된 하인들, 기술 장인들로 가난한 계층이 넘쳐났다 (28, 94-96) 부르주아로서 H.F.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양면적이다. 그의 양면적 태도는 무지와 동정의 교차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함과 동시에 질타하는 것이다. 그는 역병이 가난한 지역을 가장 먼저 공격한다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일이 없어 음식도 약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돈이 없어 전염병의 조사원, 감시원, 간호사, 매장인으

로 고용되어 이들이 먼저 전염되고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풍족한 식량을 준비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지만 가난한 계층은 매일 장을 보러 나가야 하므로 전염의 위험이 크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가난한 사람 중 런던을 빠져나가 시골로 도망간 사람들은 받아주는 곳 없이 떠돌다 죽는 사람도 많다는 것도 안다. 생존과 직결된 것 빼고 모든 거래가 중단되었고 고용이 끊어졌다(154). 제조업이 중단되거나 거래가 끊겼으며 주택건설 숙련공은 일을 잃었다. 항해가 중단되고 무역도 중단되었다. 생계비를 줄이기 위해 하인, 머슴, 하녀들도 해고되므로 그들도 일자리를 잃었다(152-154).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병에 수반되는 파괴로 죽임을 당했다. 전염병의 영향 때문에 죽었다. 굶주림과 절망, 온갖 것들의 부족으로 죽어갔다(154). 이러한 모든 것이 그의 동정심을 유발한다. 기술자든 단순한 노동자든 이 도시에서 자신의 노동으로 매일 빵을 벌었던 많은 사람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 노동이 중단되고 노동에 대한 임금이 없는 도시의 상황은 비참하게 변한다(155). 전염병에 걸린 상태에서도 식량이나 약을 구하지 못하고 의사나 약제사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며 간호사에게 의지하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전염병은 더욱 가혹하다(139). 이들은 격리된 창가에서 비참한 몰골로 도움과 먹을 것을 구하다 죽어갔다. 가난의 비참한 집단 트라우마의 생생한 이미지이다.

그러나 그의 증언에서 이러한 동정심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계가 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는 또 다른 반응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을 비판하는 것이다. 자신도 결정을 위해 성경 점(占)을 보았으면서도 가난한 이들이 미신이나 점성술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염병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졌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가장 모험적이고 겁이 없이 일종의 야만적인 용기로 그 일들을 해 냈다. 종교나 신증함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조심하지 않았다(89-90)”라고 질타한다. 병보다 기아가 무서우므로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야만적” 용기라 부르며 무시하는 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그의 계급의식의 한계가 드러난다.

### 2-1. 로버트, 로버트

이제 H.F.의 가난과 관계된 증언 중에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 중요한 일화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전염병에 희생된 가난한 뱃사공 가족의 일화이다. 이들은 전염병 때문에 가족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견고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존경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또 다른 하나는 역병이 창궐한 런던을 빠져나가 살아남은 가난한 세 남자 이야기이다. 가난한 뱃사공과의 만남은 전염병에 대처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의 동정심을 완전히 자극하고 신앙적으로도 참회의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이다. 신앙심이 깊은 H.F.는 “여전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고, 마음도 아주 따뜻하고, 신체적 건강도 좋은 것이 모두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저널리스트와도 같은 그는 갑갑증이 말이 아니었다(166). 그리하여 템즈 강가의 형편을 보러 갔다가 부유한 사람들이 역병을 피해 선박을 정박해 두고 피난처를 만든 것을 보게 된다. H.F.는 근처에서 이러한 부유함과 대조되는 가난한 뱃사공을 만난다. 아내가 전염된 뱃사공은 아내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음식을 가져다 놓고, 그러면 전염이 된 아내와 아이가 나와서 그 음식을 멀리서 가져간다. 전염된 그녀는 음식을 멀리 가져다 두는 남편에게 “로버트, 로버트”라 이름만을 부를 수 있을 뿐이다. 이 소리와 장면은 전염병의 슬픔과 비극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타블로이다. H.F.는 이 가난한 가족이 병과 죽음과 마주하여 싸우며 사랑을 유지하는 광경에 연민의 정을 느끼고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한다(173).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인 4실링을 그 가족에게 주며 그 해의 어떤 자선 행위보다 뿌듯하게 느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뱃사공의 삶이 순전히 신계만 의

지하는 삶인 데 반해 자신의 삶과 신앙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 기만적이라 생각하며 참회한다.

## 2-2. 세 남자 이야기

다음으로 H.F.가 가난한 사람들이 본받을 대표적인 사례라고 증언한 삽화의 경우를 보자. 이 ‘세 남자 이야기’가 길이로 보나 H.F.의 강조로 보나 『전염병 연대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삽화이다. 이 삽화를 예시하기 전에 H.F.는 “나는 이 재앙이 처음 닥쳤을 때 사람들이 처해 있던 무방비 상태에 대해 종종 깊이 생각해 보았다. 재앙에 이어 우리에게 온갖 혼란이 닥친 것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재난에 희생된 것은,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적절한 조치와 관리 방법이 제때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절한 조치만 취해졌더라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재앙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손들은 적절히 생각한다면 이 재앙으로부터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193)”라고 언급하고 곧이어 세 남자 이야기를 한다. 세 남자는 텐트, 연장, 독창성, 종교적 신념, 동료애로 무장하고 역병이 창궐한 런던을 빠져나가 성공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58). H.F.는 “하늘이 돕는 자를 돕는” “가난한 사람들이 따르기 좋은 본”이라고 이들의 예를 추천한다. 신을 믿더라도 수동적으로 있기보다 자립하기를 권하는 이야기이다. 이 삽화에서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자립을 강조하는 듯한데 그의 계급의식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태도와 대책에는 앞서 말했듯 모순이 있다. 언급된 세 남자는 어느 정도의 자원과 기술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동정과 인간애에 호소하는 협상 기술을 써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결국에는 환대를 받을 수 있었고 상류계층의 우연한 조력을 받는 운도 따랐다. 하지만 대부분의 더 많은 가난한 이들이 이러한 자원과 기술이 없다. 그리고 이들이 전염병에 적대적인 마을 사람들에 의해 단지 런던에서 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떠돌다 죽는다는 것을 볼 때 런던을

떠나되 지혜와 근면으로 자립하라는 그의 추천은 한계가 있다.

위기의 시대에는 더 나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H.F.는 역병의 시대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보호하고자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립을 권고하는 것 이외에 증산층인 H.F.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는 자신의 독창성을 이용하여 창의적 계획들을 제안한다. 예컨대 런던에서 가난한 사람을 대단위로 대피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이 제안은 비현실적이다. 이에 반해 역병의 시대에 자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제안은 실용적이고 개혁적이기도 하다(Healy 37). H.F.는 1665년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런던의 질서를 유지한 것은 시의 재정이 아니라 공공자선이었음을 강조한다. 국내와 국외의 구호금이 밀려 들어왔다. 기록은 그다음 해의 런던 대화재로 소실되었지만 많은 기독교인이 막대한 기부금을 냈다. 왕실에서도 미미하지만 하사금이 있었다. 신앙이 깊은 H.F.에게는 신이 도시를 전염병에서 지키는 방법이 그러한 구호금을 통해서이다(151, 155). 도시를 빠져나가는 시민들이 기부했기 때문에 부자들의 집이 약탈당하는 것이 방지되고 그가 걱정하던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다(93, 97). 이에 더하여 H.F.는 기적과 같은 1665년 역병의 종식도 자선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1722년의 부유한 런던 시민들에게 장래 전염병이 찾아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설득한다. 자선이 역병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예방이라는 것이다(Healy 38). 확실히 가난한 자의 역병에 대한 그의 증언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아우르는 생존자의 서사로서 과거에 대한 경고와 함께 회복 이후의 미래를 향하여 열려있다. H.F.는 ‘세 남자 이야기’에서 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립하기를 강력히 권하는 한편 이기적인 도피를 선택했던 귀족과 부자들에게는 시의 재정에 의지하는 것보다 자선이 역병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예방임을 일깨운다. 가난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제안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견고한 계층 사회 속에서 디포는 인간적인 삶을 공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IV. 글로 세우는 기념비

H.F.는 역병의 일화들을 증언함으로써 그 사건을 기록할 뿐 아니라 아스만(Aassman)이 이야기한 ‘기념의 형상’을 창조해낸다. ‘기념의 형상’이란 지정된 과거 어느 시점의 기억을 표상하는 문화 구성체이다(129). 그의 증언은 런던인의 ‘집단기억’에 전달되고 포괄될 서사이다. 그의 증언은 런던 대역병이라는 외상적 사건을 미학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는 말하는 증인뿐 아니라 독자이자 청자인 외상을 입은 런던인에게도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통합에 근접해 갈 기회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H.F.는 팬데믹 이야기를 보고, 듣고, 역사적 사료를 모으고, 개인적 성찰을 조합하여 『전염병 연대기』라는 증언의 미학적 형태로 재현하였다. 결과는 집단기억의 서사화로서 역병의 파괴적 이미지를 생생하게 잡아내고 추후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다. 전염병 일화를 집단 트라우마와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본다면 ‘생생함’은 문학적 수사 도구일 뿐 아니라 청자와 독자에게 트라우마의 정면 돌파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증언으로서의 H.F.는 객관적 비판적 역사가이고 또한 감정과 통찰력이 있는 소설가이다. 전염병의 트라우마적 영향력이 크고 그 트라우마에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서사화가 중요한데 H.F.는 그 역할을 충실한 증언의 형태로 수행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증언 서사 기능의 일부이다. H.F.는 증언을 통해 기억할 뿐 아니라, 기념하여 그들의 명예를 기리고자 한다. H.F.는 1665년 페스트가 물러간 후 런던 대역병 때 수고한 목사, 행정 관료와 관계자, 그리고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한다.

나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내과 의사들과 외과 의사들, 약제사들, 치안 판사들, 그리고 모든 관리들을 목숨을 걸고 의무를 수행했던 훌륭한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에 남아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기려야 한다**. 몇몇은 죽었다. 자신의 의무 수행 중 죽은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고 있었지만, 개인 사인의 세부적 사항은 알기 힘들다. (357 강조 첨가)

그리고 H.F.의 글은 또한 매장지를 적어 둠으로써 이름 없이 묻힌 페스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기리고자 한다, 그의 증언은 페스트로 죽어 제대로 묻히고 애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리고 추모한다. 그들의 죽음의 신성함을 되찾고자 한다. 그는 그곳에 묻힌 시신들이 파내지거나 난폭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평온하게 잠들 수 있도록 그의 기억에 뚜렷이 남은 매장지들의 기록을 남길 것이다. 매장지야말로 공적인 것도, 사적인 것도 아닌, 더가브리엘이 (Peter Degabriele) 말하듯 “친밀함”에서 행해지는 행위이다.

그래서 매장된 시신들이 다시 파내어져 난폭하게 다루졌으며, 일부 시신들은 살점이 뼈에 붙은 채 썩기도 전에 거름이나 쓰레기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350). 이것들 외에도 매장지를 많이 열거할 수 있지만 “나의 기억에 뚜렷이 남은 이 매장지”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묻기 위한 새로운 매장지가 필요했던 것 같다 (352).

그러나 거기에 묻힌 시신들이 그대로 평온하게 잠들 수 있도록 [...](353).

매장지를 글로 상세히 기록하고 열거하는 것은 글로써 죽은 자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행위이다. 디포는 H.F.가 쓴 증언 서사를 통하여 무명의 페스트 희생자들을 글로써 애도하고 기념비를 세워준다.

2020년, 다시 인류가 맞은 전염의 시대다. 봉쇄된 이탈리아의 한 곳

에서 철학자 파올로 조르다노(Paolo Giordano)는 우리는 지금 “생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인류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공동체와 개인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고 이 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76) 라고 말한다. 코로나 19는 물리갈 것이다. 우리는 그때 문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역사는 도는가? 1722년 디포의 경고의 증언 서사 『전염병 연대기』는 현재 상황을 여러모로 반영하면서 역사와 생태계 속 인간의 자리를 성찰하게 한다. 증언 서사와 같은 문학의 기능은 기록하기 어려운 사실을 기록하면서 치유의 기회를 주고 그 의미를 성찰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것도 물론 문학의 몫이다.

## ■ 참고문헌

- 조성란. 「“그의 마음은 여전히 리처드 파커에게 붙들려 있다”-트라우마와 치유로서의 증언: 안 마텔의 『파이 이야기』 연구. 『영미연구』 49.1 (2020.6): 55-82.
- 파올로 조르다노.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 김희정 역. 은행나무, 2020.
- Assman, Jan, and John Czaplicka.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65 (1995) : 125-33. Print.
- Bell Walter. *The Great Plague of London*, rev. ed. London: Bodley Head, 1923. Print.
- Brooks, David. “Daniel Defoe's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Sydney Studies in Society*, 1992. openjournals.library.sydney.edu.au. Accessed 2020. 07.05 Web.
- Colclough, Jenna M. “Thucydides' Account of the Plague as Trauma Narrative.” *Electronic Thesis and Dissertation Depository*. 4-3-2019. Accessed 2020.07.22. Web.
- Cooke, Jennifer. “Writing Plague: Transforming Narrative, Witnessing, and History.” *The Tapestry of Health, Illness, and Disease*. 31-42. DOI: [https://doi.org/10.1163/9789401206716\\_004](https://doi.org/10.1163/9789401206716_004) Accessed 2020.07.10. Web.
- Defoe, Daniel.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Louise Landa intro. London: Oxford UP, 1969. Print.
- Degabriele, Peter. “Intimacy, Survival, and Resistance: Daniel Defoe's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ELH* 77.1 (2010): 1-23. Print.
- F. Bastian. “Defoe's *Journal of the Plague Year* Reconsidered.”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 16.62 (1965): 151-73. Print.

- Flanders, W. Austin. "Defoe's *Journal of the Plague Year* and the Modern Urban Experience." *Daniel Defo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Max Byrd. NJ: Prentice Hall, 1976: 150-69. Print.
- Fortes, Meyer. "Foreword" in *Social Anthropology and Medicine*, ed. J.B. Loudon, A.S.A. Monograph 13. London: Academic Press, 1979. Print.
- Giesen, Bernard. "Social trauma." I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st. edition. Ed. by N.J.Smelser et al, Cambridge: Cambridge UP, 2001. 14473. Print.
- Giordano, Paolo. *Nel Contagio*. Giulio Einaudi Editore, 2020. Print.
- Healy, Margaret. "Defoe's Journal and the English Plague Writing Tradition." *Literature and Medicine*. 22.1 (spring 2003): 25-44. Print.
- Lifton, Robert, J. *The Protean Self: Human Resilience in an Age of Fragmentation*. New York: Putnam, 1995. Print.
- Novak, Maximillian E. "Defoe and the Disordered City." *PMLA* 92.2 (1977): 241-52. Print.
- \_\_\_\_\_, *Realism, Myth, and History in Defoe's Fiction*. Lincoln: U of Nebraska P, 1983. Print.
- Peraldo, Emmanuelle. "Telling Figures and Telling Feelings: The Geography of Emotions in the London of Defoe's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and *Due Preparations for the Plague*(1722)" (2009): 279-92. Print.
- Porter, Katherine Ann. *Pale Horse, Pale Rider: Three Short Novel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39. Print.
- Rosen, Alan. "Plague, Fire, and Typology in Defoe's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Connotations*. 1.3 (1991): 258-82. Print.
- Rubincam, C. "Thucydides and Defoe: Two Plague Narra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lassical Tradition*. (2004). 194-212. Print.

- Schonhorn, Manuel. "Defoe's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Topography and Intention."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 (1968): 387-402. Print.
- Seager, Nicholas. "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 Epistemology and Fiction in Defoe's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Modern Language Review* 103.3 (July 2008): 639-53. Print.
- Stephanson, Raymond. "'Tis A Speaking Sight': Imagery as Narrative Technique in Defoe's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Dalhousie Review* 62.4 (1982): 680-92. Print.
- Zimmerman, Everett. "H.F.'s Meditations: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PMLA* 87.3 (May, 1972): 417-23. Print.

❖ ABSTRACT

H.F.'s Testimony: A Study of Daniel Defoe's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Cho, Sungran  
Kyung Hee University

Daniel Defoe's *A Journal of Plague Year* deals with the 1665 Great Plague of London, personal and collective trauma. This paper treats Defoe's novel as testimony and its narrator as a witness and explores the efficacy of such testimony. This paper examines the representation of the sufferings caused by the plague and discusses the plagu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class. It also examines the effect of the narrative strategy of using vivid imagery rather than the didactic narrative form. Regarding the narrator's treatment of the social class, the paper argues that H.F. has keen social consciousness and sympathy for the poor and his testimony shows that the poor suffer more from the plague because of their poverty.

This testimony of suffering using vivid imagery renders the realistic picture of the past plague year of 1665, foretelling the reader about the imminent catastrophe of the plague in 1772. What Defoe intends using H.F. as the witness of the trauma is two-fold; first, he suggests that healthy people be quarantined separately from the sick people in case the plague spreads and increase the number of the plague houses. Second, he suggests people repent their sins to prevent another plague which is the sign of God's wrath. Ultimately, this paper argues that his testimony creates collective memory and functions as a memorial for the

nameless plague victims, while warning against future calamity. The witness-narrator acquires partial healing from his trauma through his talking while the listener-reader partially participates in the vicarious experience with horror and sympathy, thus 'working through' their trauma.

Key Words :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collective memory, Daniel Defoe, imagery, social consciousness, testimony, trauma survivor narrative, witness

■ 논문접수일 : 2020. 08. 10

■ 심사완료일 : 2020. 09. 13

■ 게재확정일 : 2020. 09. 14